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 질병관리청, 2024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운영
- 일반인과 의사 모두 항생제 적정사용 인식 낮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 18.~11. 24.)*」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년 운영주제) 교육하세요. 옹호하세요. 지금 행동하세요.(Educate. Advocate. Act Now)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항생제(치료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증식하여 치료가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의 종류가 줄어들고, 특히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경과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당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정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항생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각국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전세계 항생제 사용량) ('20년) 15.6 DID → ('21년) 15.9 DID → ('22년) 18.9 DID

※ DID: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OECD, Health Statistics 2024(2024.11.12.))

** 제77차 세계보건총회(2024년 5월)의 전략적·운영적 우선순위 채택, 제79차 UN 총회 고위급 회의(2024년 9월)의 정치 선언문 승인 등

특히, 올해 9월에 열린 UN 총회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정치 선언문 채택을 통해 일반인의 인식 제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미래 세대의 핵심인 청소년 대상 항생제 내성 학교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약 30%가 부적절한 처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9년, 질병청).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4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었음을 보도하며, 향후 항생제 내성의 위험이 더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항생제가 필요한 사례는 8%임에도, 환자의 75%에서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일반인 모두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는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적절하게 처방*하고, 일반인은 처방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며, 의사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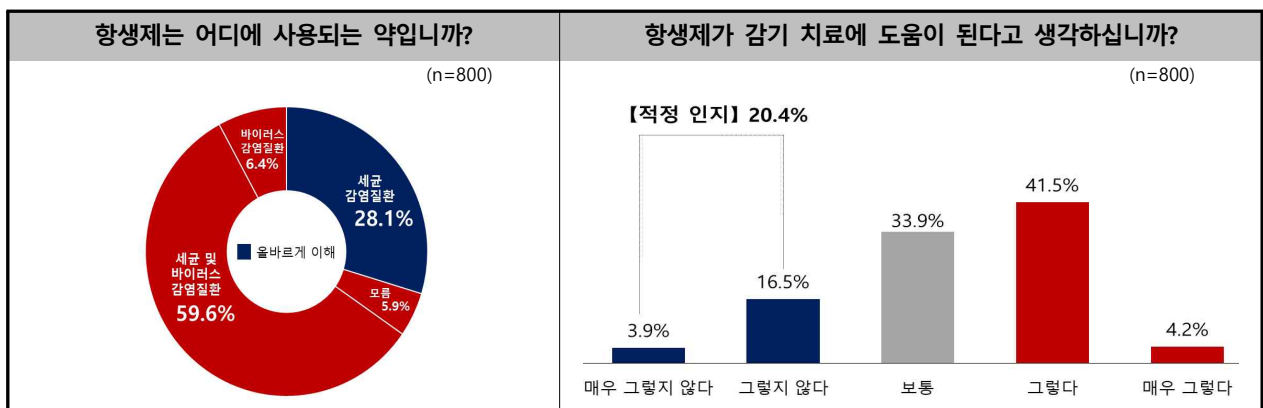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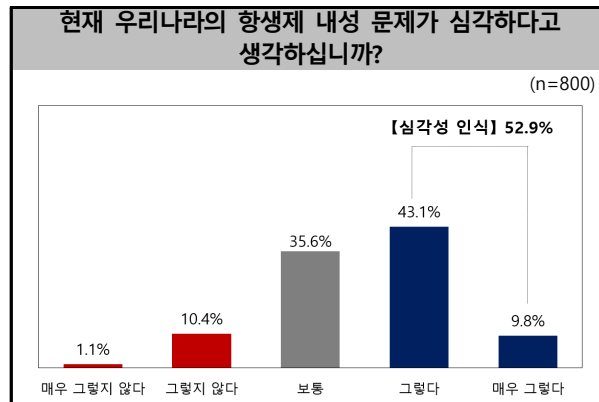
* 적절한 약제 종류, 투여 용량, 투여 시기, 투여 경로 등을 선택

한편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의사가 일반인보다 다소 높았지만,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처방)에 대한 인식은 의사와 일반인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일반인 800명, 의사 1,100여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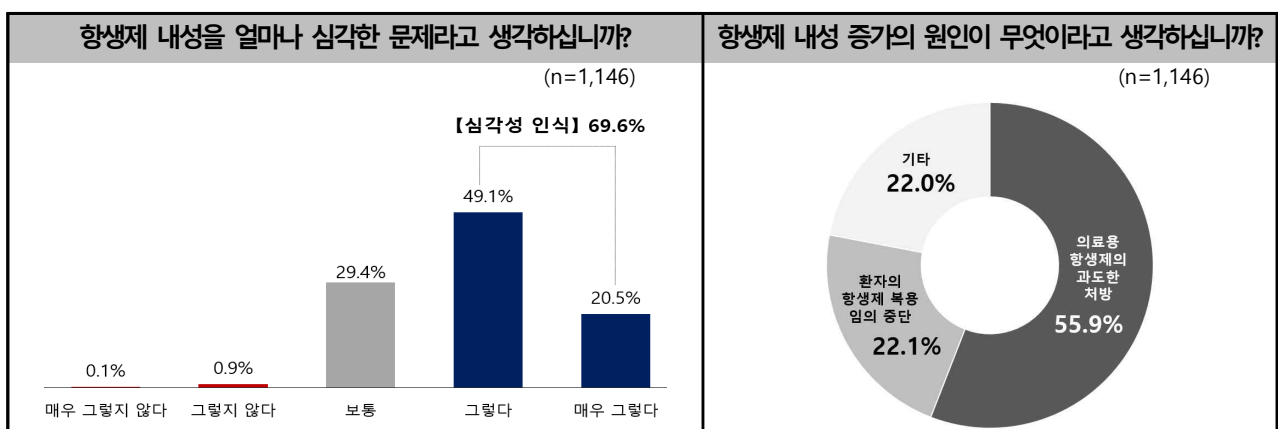
일반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52.9%) 정도가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30% 이하에서만 항생제의 의미와 용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 항생제는 세균 감염질환 치료제로, 바이러스 감염질환인 감기에는 치료 효과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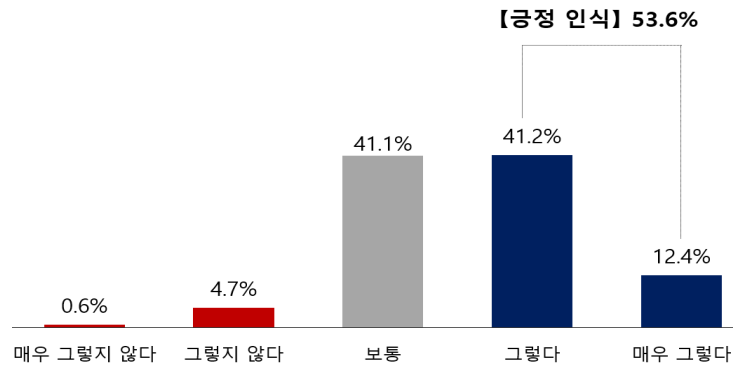
의사의 경우, 응답자 약 10명 중 7명(69.6%)이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고, 주로 의사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55.9%)과 환자의 항생제 복용 임의 중단(22.1%)으로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본인의 항생제 사용지침에 따른 처방을 어느정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수준(53.6%)이 ‘지침에 따라 충실히 처방한다’고 응답하였고,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1%가 ‘처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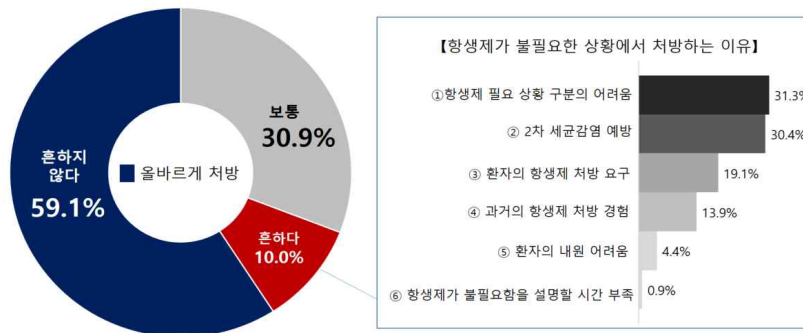
선생님께서 하시는 처방은 적응증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항생제 사용 지침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n=1,146)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히 있으십니까?

(n=1,146)



이번 인식주간에는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이어 “항·필·제·사(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를 캠페인 표어로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항생제 내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먼저 항생제 내성의 발생과 전파 원리, 예방관리 수칙 등 일반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팩트 시트(fact sheet)와 함께 팩트 시트의 심화 해설 동영상 제작(질병청, 대한항균요법학회 공동)하여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 (게재장소)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일반정보

학교 내 활동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항생제 내성 인식을 제고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카드뉴스*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자료내용) 항생제와 내성균의 의미,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 중요한 이유 등
(게재장소)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

그 외 다양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항생제 내성 메뉴’를 개편한다. 우리 국민 누구나 누리집 ‘정책정보’ 내 메인화면에서 항생제 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 콘텐츠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유형별로* 검색·활용할 수 있다.

* (메뉴구성) ▲항생제 내성 일반정보, ▲사업정보, ▲지침·간행물, ▲홍보물·보도자료

아울러 11. 18.(월)부터 11. 19.(화)까지 항생제 내성 분야 정부 부처들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련 정책 및 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One-Health 항생제 내성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국민 모두 항생제 내성 인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물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나리 (043-719-7530)
		담당자	연구관	서승희 (043-719-7531)
		담당자	주무관	정가영 (043-719-7536)



□ 팩트시트 동영상 (6종)

연번	썸네일	주요내용
1		- 항생제 내성균의 의미 -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항생제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함
2		- 항생제 내성의 초기 발생 - 부적절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발생 - 항생제 내성균의 증식과 확산과정
3		- 항생제 내성 발생이 개인의 치료와 의료체계, 사회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신규 항생제 개발의 어려움 소개
4		- 사람-사람, 동물-동물, 동물-사람 간 접촉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 - 의료기관 물과 토양, 국제적 이동 등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전파
5		-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 감염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
6		-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세균 감염질환의 사례 -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사례

* (게재장소)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일반정보

□ 리플릿(1종)

<겉지>



항생제의 효과가 들지 않는 항생제 내성,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계적인 항생제 오남용, 얼마나 되나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1월~23.3월)>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	항생제가 처방받은 상황
8%	75%

* 자료원 : 세계보건기구(WHO) 보도자료(2024)

✓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2050년에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연간 1,000만 명 사망¹⁾

※ [참고] 2020-2022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수 약 670만명²⁾

* 자료원 : 1)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2014)
2) our world in data(2020-2022)

24.11.15. 질병관리청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항생제 사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 ✓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기
- ✓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않기
- ✓ 항생제는 처방받은 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 ✓ 항생제 복용 중단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
- ✓ 손씻기, 예방접종으로 감염 예방하기

항생제
세균 감염질환을 치료하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으로
감기약도 해열제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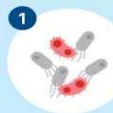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속지>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
왜 중요할까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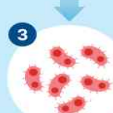
몸 속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포함한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던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게 됩니다.

3



살아남은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증식을 통해 몸속에서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4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 등으로 전파됩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디서든 발생해요

원인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  사람, 농작물, 동물, 어류

부적절한 항생제 폐기 →  물, 토양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① 몸 속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 ✓ 항생제를 복용해도 **세균이 죽지 않습니다.**
- ✓ 내성이 생긴 항생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늘어나면?

- ✓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점점 줄어들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이 증가**합니다.

항생제 내성,
이렇게 예방해요

1.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해요

- 손씻기와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하기
- 항생제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만 복용하기
- 먹다 남은 항생제나 타인의 항생제 복용하지 않기

**2. 항생제가 불필요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기억해요**

 감기, 콧물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3. 항생제는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해요

- 처방에 따라 용량, 기간, 시간을 지켜 항생제 복용하기
- 항생제 복용 중단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4.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를 예방해요**

-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하기

* (게재장소) 1)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2)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

□ 카드뉴스(3종)

○ (초등학생용) '항생제는 무엇일까요'편



○ (초등학생용) '항생제 내성균은 무엇일까요'편



○ (중고등학생용)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 왜 중요할까요'편



* (게재 장소) 1)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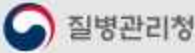
2)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

□ 포스터(2종)

○ 일반인용



○ 의료인용



질병관리청



대한항균요법학회
Korean Society for Antimicrobial Therapy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항생제사용,
짧은 기간이
더 좋습니다.**



"Shorter Is Better"

"항생제 적정사용관리(스튜어드십)"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합니다.

* 자료원

① JAMA Intern Med 176:1254-1255, 2016

② Antibiotic Do's & Don'ts, CDC, <https://www.cdc.gov/antibiotic-use/do-and-dont.html>

③ The WHO AWaRe (Access, Watch, Reserve) antibiotic book, 세계보건기구

- * (게재장소) 1)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2)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